

“트럼프, 이란 해상봉쇄 장기화 대비하라 지시”

이란 ‘핵 포기’ 얻어낼 지속적 압박 “폭격·개입중단보다 덜 위험한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이 인용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포함한 최근 회의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해 이란의 경제와 석유 수출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재개하거나 분쟁에서 손을 떼는 다른 선택지들이 봉쇄 유지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판단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장기화 준비 지시를 두고 “이란이 오랫동안 거부해온 핵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 이란의 자금줄을 겨냥한 고위험 도박”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프로그램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의구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심 요구 사항인 ‘모든 핵 활동 해체’를 수용할 때까지 이란 정권을 거세게 압박하기를 원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미국은 이란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차단하는 ‘역봉쇄’ 작전을 펼쳤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소 설을 통해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며 봉쇄 효과를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WSJ에 “봉쇄가 이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팔리지 않은 석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 새로운 접촉을 시도하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봉쇄 지속은 이미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나 전쟁 지속이 경제에 타격을 줄 뿐이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인 긴장 완화책을 담은 이란의 제안을 검토할 때 이 같은 조언도 그의 귀에 맴돌았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이 제안을 수용하면 이란으로부터 핵 포기를 끌어낼 미국의 지렛대가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한다.

미국은 양측의 평화 합의가 반드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다뤄야 하며, 핵 활동 제한에 대한 타임라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 이란이 최소 20년 동안 핵능축을 중단하고 관련 제한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협정이 체결된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마을을 포격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스라엘군, 2km 헤즈볼라 터널 폭파...“폭발물 450t 동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칸타라 마을에서 이란의 직접적인 지도로 건설된 헤즈볼라의 대형 공격용 터널 2곳을 찾아내 폭파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터널 폭파에는 총 450t의 폭발물이 동원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터널들은 10년에 걸쳐 땅속 약 25m 깊이에 건설됐으며, 이란 정권의 자금 지원을 받아 헤즈볼라의 갈릴리 점령 계획 하에 구축됐다.

두 터널은 인접해 있으나 서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며, 총길이는 약 2km에 달한다. 이는 지금까지

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발견한 지하 시설 중 가장 길다.

이스라엘군은 이 시설들이 지난 2024년 전투 당시 라브 알-탈라신과 마이스 알-자발 지역에서 발견된 광범위한 지하 터널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헤즈볼라가 이 지하 기지에 수백 명의 요원을 집결시킨 뒤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하기 위한 출격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이스라엘군은 보고 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런 침공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터널 내부에는 요원들의 장기간 체류를 위한 다수의 무기와 생활 장비가 비치돼 있었으며, 한 터널에는 이층 침대 여러 개가 놓인 방 10여 개가 갖춰져 있었다.

또, 터널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발사대와 이를 지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직 통로도 있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이 터널들이 이란의 기준에 따라 건설됐으며, 기획과 자금 조달 전 과정에 이란이 직접 개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OPEC 탈퇴...UAE, 사우디 중동질서 정면 도전

핵융합급 결단...이란전쟁으로 임계점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식 중동질서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 전쟁에 가려져 있던 양국의 해묵은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UAE의 28일(현지시간) OPEC 탈퇴 결정은 국제유가를 사실상 지배하며 중동 질서를 주도해온 사우디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읽히는 면이 있다.

OPEC이 원유 감산을 결정하더라도 UAE가 생산을 늘리면 그만큼 가격 조정 효과는 반감되고, UAE의 시장 영향력은 확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UAE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

OC)는 전쟁 이전 하루 340만배럴 규모였던 원유 생산량을 2027년까지 하루 500만배럴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OPEC의 방침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증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사실상 실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UAE 소재 싱크탱크인 에미리트정책센터의 에브데삼 알케트비 소장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UAE가 석유시장의 독립적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UAE는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조정 생산자’(balancing producer)로서 스스로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OPEC의 결속력을 점진적으로 약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에 직접 영향을 행사하는 핵심 주제로 UAE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日 핵무기 반입 허용 나서나...비핵 3원칙 중 가장 약한 고리

美 핵잠수함 日 기항 허가 여부 관련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3원칙 중에서도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수정될 주목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본 일본은 평화헌법 기초 아래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해왔지만,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 속에서 최근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의 총괄 전략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놓고 최근 처음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잠수함 도입 등이 거론됐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끄는 방위력 강화 정책의 ‘가속장치(엑셀러레이터)’ 역할을 자임하는 일본우신회가 지난 28일 연 안보조사회의에서도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핵 3원칙을 이루는 보유·제조·반입 금지 조

항 가운데 타국에서 만든 핵무기를 일본 내로 들어오는 반입 허용이 가장 약한 단계의 원칙 완화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책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할 경우 미국의 핵 탑재 함이 일본에 기항하는 문제를 인정할지도 관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